

# aT, 식품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모집

## 식품기업 대상 최대 2억원 지원...4월 9일까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홍문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 식품 제조기업을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

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 제조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K-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순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넘어, 관계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산업 밀착형 스마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ICT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스마트공장 관리시스템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이며,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 방식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자부담을 1대 1로 매칭하며, 총 20억 원 규모로 10개 내외의 과

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식품 품질·위생 역량 제고 지원사업 컨설팅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 지원 ▲현지화 지원사업 등 식품·수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에 참여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 전남농기원, 곡성 토란 활용한 '토란 조롱이떡' 상품화

## 토란 소비 확대·농가소득 향상 기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곡성의 대표 특화작목인 토란의 소비 확대를 위해 '토란 조롱이떡'을 개발·출시했다.

곡성 토란은 전국 생산량의 58%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지리표시제 제108호로 지정된 전남의 대표 특산물이다.

토란에는 칼륨과 칼슘 등 무기질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C, 식

이섬유가 풍부하며, 갈락탄과 뮤신 등 기능성 물질을 함유해 혈압 조절과 변비 개선, 항당뇨, 면역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토란은 대부분 원물 형태로 유통돼 토란국으로 한정되어 소비되고, 특유의 아린 맛으로 인해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토란의 아린 맛을 줄인 분말을 첨가해 만든 토란조롱이떡(전남농기원 제공)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2년 간 토란의 아린 맛을 줄이고 조

리 편이성을 높인 가공 소재와 제품을 개발해 왔으며, 그 성과로 '토란 조롱이떡'을 올해 선보이게 됐다.

조롱이떡에 사용된 토란 분말은 전남농업기술원의 아린 맛 저감 기술을 이전받아 곡성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맛다곡성' 협동조합원 농가에서 생산됐다.

제품은 화순군 소재 떡 생산업체인 '심은농조합법인(심은솜씨)'에서 생산해 현재 자사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향후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기존 '한국붉은감협회'

## '한국감협회'로 명칭 변경 완료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기존 '한국붉은감협회'가 '한국감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붉은'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붉은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법률상 품목 명칭은 '감'으로 표기돼 있어 용어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감은 단감과 달리 수확 직후 생과

로 먹기보다는 곱감, 감말랭이, 홍시 등으로 소비되는 품목이다.

협회는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붉은감이나 덜 익은 감이라는 오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감협회는 이번 명칭 변경이 품목 인지도 제고와 시장 경쟁력 강화, 수급안정 및 판로 확대 등 감 자조금 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협 제공

# 유통 단계 줄이고 신선함은 올리고

## 농협, 한우 브랜드 '더한점' 본격화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분사장 김재영)는 차별화된 생산 구조로 한우 시장 재편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재편의 핵심 구조는 '원체인(One-chain) 생산 방식'과 '비대면 유통 강화'이다.

지난해 출시된 농협 한우 브랜드 '더한점'은 이 시스템을 적용해, 원료육의 외부 반출을 차단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생산 동선을 최소화했다.

DNA와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을 통과한 '농협안심한우' 만을 사용해 신선도와 안전성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올해 농협경제지주는 '더한점'을 대표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NH상심물, 쿠팡 로켓프레시,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고, 프리미엄과 실속형 라인업을 모두 확장할 계획이다.

김재영 축산물도매분사장은 "더한점은 효율적인 생산 구조와 신뢰로 승부하는 브랜드"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한우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 식품안전 기준을 반영한 관리 체계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인 유통을 강화하고, 프리미엄과 실속형 라인업을 모두 확장할 계획이다.

김재영 축산물도매분사장은 "더한점은 효율적인 생산 구조와 신뢰로 승부하는 브랜드"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한우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 식품안전 기준을 반영한 관리 체계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서울유협동조합

## 간편한 스낵치즈 신제품 '한입치즈 3종' 출시

### 술안주는 물론 영양 간식으로도 제격

서울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홈플러스를 반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어포 기반의 스낵치즈 신제품 '한입치즈 3종'을 출시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홈술, 혼술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특히, 혼자서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안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간편식 제품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유협은 대표 안주로 손꼽히는 어포에 치즈의 풍미를 더한 차별화된 간편식을 새롭게 선보였다. 신제품 '한입치즈'는 ▲오징

어 ▲어니언베이컨 ▲블랙페퍼 등 총 3종으로, 각 재료의 매력에 치즈의 풍미를 더해 친숙하면서도 색다른 맛을 조화롭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오징어'는 쫄깃한 오징어의 식감과 부드러운 치즈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어니언베이컨'은 짭조름한 베이컨과 달달한 어피언의 조화로운 풍미가 일품이다.

무엇보다 기존 안주 간편식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던 어포 기반의 스낵치즈로 차별화된 맛과 풍미를 자랑하는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다. 술안주는 물론, 영양 간식으로도 제격이고, 35g 소용량 구성이라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프리미엄 스낵치즈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유협 제공

# '스팸 골드바 에디션' 크림서 한정 수량 선착순 발매

## KREAM에서 행운의 골든 티켓과 함께 재출시

CJ제일제당이 지난 추석 큰 인기를 끌었던 스팸 리미티드 에디션을 다시 한번 선보인다.

CJ제일제당은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에서 '스팸 골드바 에디션'을 재출시한다.

이번에는 물량을 보다 넉넉하게 준비하고 행운의 '골든 티켓' 당첨 인원도 30명으로 확대해 지난 추석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정판의 즐거움과 인박심(개봉)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제품은 크림에서 5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스팸 골드바에디션 이미지

지난 추석 처음 선보인 '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골드바를 연상시키는 종이상자 안에 황금색 라벨의 스팸을 담은 제품으로 실제 금 1돈을 받을 수 있는 '골든 티켓'이

랜덤으로 동봉되어 이색적인 선물로 주목받으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식료품 업계 최초로 크림에 입점해 '스팸 골드바 에디션'을 1000개 한정 수량으로 발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완판을 기록하는 등 화제성을 입증했다.

'스팸 골드바'를 소재로 시를 활용해 제작한 창의적인 숏폼부터 인박심, 레시피 리부 등의 다양한 콘텐츠도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확산되며 열기를 더했다. 이러한 인기에도 힘입어 이번 설에는 판매 채널도 한층 더 넓혔다.

안전이기자  
midal0210@naver.com

#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식품용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독시사이클린)이 기준(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냉동흰다리새우살(식약처 제공)

#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신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